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에다 굴려놓으라

☞ 21면에서 계속

만 있다면 안에서 끼고 바깥에서 끼고 할 수 있다면, 안에서 끼면은 바깥에서 벌써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가설은 본래 돼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 살아 있다 하면은 벌써 이 세상 가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즉 끊임없는 예로부터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마음을 전달해서 이날까지 나온 것이지 마음을 전달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예부터" 하는 소리는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긴데, 그때서부터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의 계발이 됨으로써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됨으로써 몸이 바뀌지고 바뀌짐으로써 옮겨 놓고,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는 예까지 온 것인데, 지금 옮겨진 몸만 몸인 줄 알고 있죠. 어저께 굼벵인 줄 모르고 오늘 매미인 줄만 아는 그러한 속 좁은 마음이죠.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한데 뭉쳐서, 일심(一心)도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에는 전자대로 끊어지지 않고 예부터 오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마음을 "예부터" 했단 말입니다. 옛 자리나 지금 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돼 가지고 일체 만물의 선장인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폭이 넓지 못하고, 팔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우주의 근본과 일체 만물의 근본을 한 마음에 넣고 굴리지 못합니까? 물론 새들도 재잘거리고 입으로만 말을 하지, 도대체 마음으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말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오신통이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듣고 보고 해도 내가 이것을 옮겨 놓을 줄 모르고 자유자재 못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보기만 하면 뭘 하고 듣기만 하면 뭘 합니까?

만약에 백 명이든 십만 명이든 딱 마주쳤을 때, 즉 말하자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내가 급하니까 그것을 옮겨 놓을 수밖에는 없는 거, 즉 말하자면 어떠한 폭풍이 왔을 때 '폭풍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 놓고 분배를 하면 여기도 무너지지 않고, 저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성의 근본적인 자비요, 바로 자비의 원력입니다. 무너지면 살려고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도 그 몸뚱이도 모두가 다 중생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음이 그렇게 넓은 자비 원력이 있다면, 폭풍이 올 것을 흩어지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무너지는 걸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못들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 가는 것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살면서도 내 앞에 닥치는 거 남 일 보듯 그냥 돌아설 겁니까? 닥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스스로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저녁거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은 스스로 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라 해서 하고 말라 해서 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피해서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 굶어 죽어도 내가 귀찮다고 '에잇, 나나 먹으면 됐지.' 그러고 그냥 달아나가진 못합니다. 그러니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날아다니는 새도 "엄매 엄매" 하고 우는 소도 심중 깊이 마음으로서 말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운문 스님도 마음을 전달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를,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에 참견하지 말고 주변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놨을 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놨을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 공부하는 거는 틀려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져 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얘기해 드릴 것은 우리는 지금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을 둘로 보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나로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깨달은 대로의 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비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그건 무명을 치고 옷만 벗겼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이 아니라 자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욕을 한마디 해 놓고선 그 사람 마음의 근본을 건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남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해 버리는 그런 습이, 여러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습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급작히 닥쳤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작히 닥칠 때에 한번 찔러 보면 영락없이 예전의 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법이 돼서 한번, 어저께도 조금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일체 만법에 의해서 마음의 보배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드라면은 큰 거를 쓰려면 큰 코드 하나에,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모터를 돌리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지고 '난 냄비에 찌개를 끓이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찌개가 끓여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섭리나 이 세계의 섭리나 나라의 섭리나 가정의 섭리나 복잡한 몸의 섭리나 모두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니 부처니라."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색에 끄달리지, 욕심에 끄달리지, 말에 끄달리지, 나에 끄달리지 모두 끄달리다 보니깐 아예 그냥 철통같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의해서 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을 먼저 하는 것은 사법이고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이든 사법이든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놔 버려야 됩니다. 놔 버리고서 자기가 한생각을, 한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서 무심히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편리하게 살아나가듯이 큰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스스로의 자기 한생각에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저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 좋게 탁 내던질 때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을 좋게 내 주기 위해서 한 번 찔러 볼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 번 말을 푹 찔러서 남의 부아를 훌렁 뒤집어 놨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한번 해 봄으로써 거기에선 한마음의 도리에 큰 공덕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도 속이 뒤집어지게 남한테 말을 해 주는 거는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가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는 그건,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비입니다. (중략)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참견을 안 하되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닥친 참견은 해야지요.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주인공에 맡겨 놓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말로 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다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바깥으로 더 커지죠.

이런 건 다 놔 버리고 자기한테만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거슬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끝없는 예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을 받고 내가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이겁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상이 구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법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걸 다 놔 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엎드러져 보고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요렇게만 가야겠다' 이건 모두가 착이야.

예전엔 그렇게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지 억지로 들어지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에 백지의 마음을 봐라 이겁니다.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 글씨 속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그대로 글씨 써 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그 뜻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스스로 코드를 꽂고 스스로 코드를 빼고, 우주 법계에 스스로 천체 통신력으로 이행해 주고, 그대로 통신이 되면 가차 없이 그대로 정돈해 주고 책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 도리를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이 체가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체가 없기 때문에 한생각 내면 그냥 그게 내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도리를 이렇게라도 알아서 커버해 주는 사람은 쉽습니다. 병이 아무리 위독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는 사람이 커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붙들고 애를 쓰면은 그만치 더딥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묘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도 애착이 없이, 남의 걱정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아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의 걱정이 있걸랑은 내 마음에다가 맡겨 놓으시라는 얘기지 걱정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안에다가 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맡겨 놓으신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 주는 것보다 백 곱쟁이 천 곱쟁이 아마 좋은 결과를, 씨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도 좀 더 사는 데에 괴로움이 없이 사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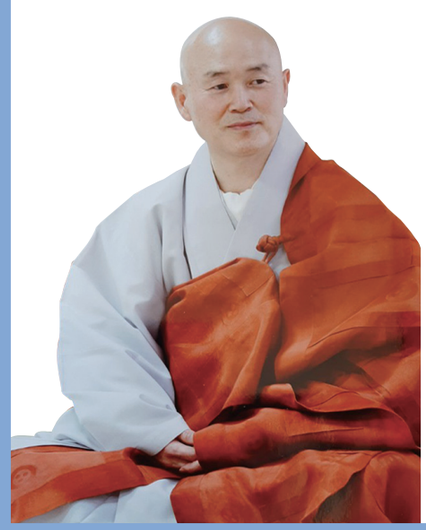
공부하는 사람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6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3차분 13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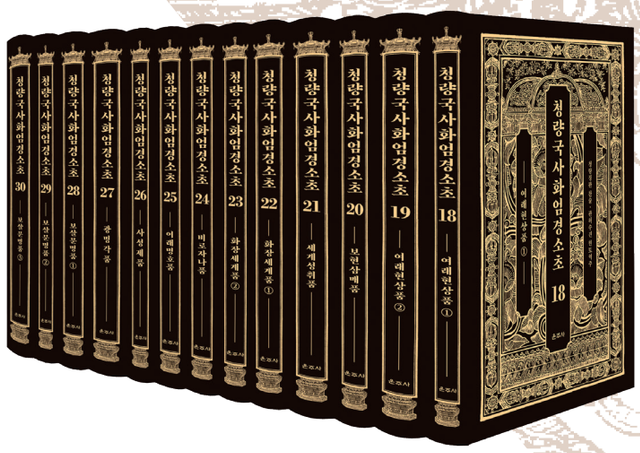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3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1차분 「화엄현담」 10권(2020년), 2차분 세주묘엄품 7권(2021년)
드디어 3차분(2022년) 제2품 여래현상품부터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제10품 보살문명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